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 강순 연구*

하 상 일**

차 례

- | | |
|----------------------------|-----------------------------|
| 1. 머리말 | 3. 조국 통일에의 염원과 재일 디아스포라의 실존 |
| 2. 재일 디아스포라의 민족 정체성과 이데올로기 | 4.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 강순을 연구한 것이다. 강순은 해방 이후 허남기, 남시우 등과 함께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형성기를 주도한 시인이다. 그는 해방 이후 총련 산하 문예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조직의 이념적 폐쇄성에 반발해 문예동을 탈퇴하고 남한과 북한 양쪽 모두와 비판적 거리를 두면서 재일 디아스포라의 사회역사적 실존을 성찰하는 데 주력하였다. 우리말로 시를 창작하면서 재일 디아스포라의 이중 언어 현실을 깊이 고민했으며, 1960-70년대 남한의 진보적 시인들의 시집을 일본어로 번역 소개함으로써 1960년대 이후 남한 시문학과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32-A00130)

** 동의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교섭에 일익을 담당했다.

첫 시집 『강순시집』은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고려하여 총련 결성 이전의 시와 이후의 시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총련 결성 이전의 경우에도 해방 직후부터 남북한이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1945-1948)하기까지 시의 양상과 그 이후부터 총련이 결성되기 전(1949-1954)까지 시의 모습은 일정한 차이가 있는데, 전자가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재일조선인들의 근원적 향수와 민족의 정한을 드러내는 민족적 표상의 형상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후자는 해방이 분단으로 고착화되어버린 현실에 대한 비판과 총련계 재일 지식인으로서 민족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모습을 형상화하는 데 강조점을 두었다. 그리고 총련 결성 이후(1955-1964)의 시 세계는 총련의 지도자로서 북한에 대한 찬양과 남한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의 양상을 두드러지게 표방하였다.

두 번째 시집 『강바람』은 남북의 경직된 이데올로기에 철저히 종속되어 극단적 대립과 갈등으로 치달는 재일조선인 사회의 이원화에 대한 비판과,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는 반통일세력, 즉 미국, 일본과 같은 외세는 물론이거니와 민족보다 이념을 더 우선시하는 재일조선인 내부의 조직적 폐쇄성에 대한 강한 부정을 담았다. 이러한 그의 시의 경향은 그가 1964년 <조선신보사>를 그만두고 총련 조직을 떠난 가장 큰 이유가 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 디아스포라적 주체로서 그의 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민족의 통일에 있었음을 명확하게 제시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는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민족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모어로서의 일본어와 모국어로서의 우리말 사이에서 침예한 갈등을 겪어온 이중 언어의 현실을 특별히 주목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중 언어의 현실조차 이데올로기적 허구성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으로, 재일조선인들의 실존을 규정하고 민족 정체성을 구현하는 언어의 실천적 가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다. 그의

시가 이데올로기 중심의 『강순시집』의 경향에서 벗어나 재일 디아스포라의 생활상을 구체화하는 『강바람』의 세계로 변화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주제어 : 재일 디아스포라,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 강순, 허남기, 남시우, 김시중, 김윤, 정화흠, 김학렬, 정화수, 『강순시집』, 『강바람』, 총련, 문예동, 역사의식, 이데올로기

1. 머리말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은 허남기, 강순, 남시우를 시작으로 김시중, 김윤, 정화흠, 김학렬, 정화수 등으로 이어져 왔다. 특히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는 허남기, 강순, 남시우의 3인 시대¹⁾라고 할 만큼, 세 시인은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초석을 닦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가운데 허남기는 애국적이고 혁명적인 시인, 해방 이후 월북 문인들의 빈자리를 메운 사실주의 시인으로 평가받았고, 1959년 결성된 재일 조선인문학예술가동맹(문예동)의 초대위원장을 맡는 등 재일조선인총연합(총련)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면서 북한문학계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 뿐만 아니라 남한문학계에서도 그의 서사시 『화승총의 노래』가 번역·출판되면서 동포시인 가운데 제일 문학적 성취가 뛰어난 분²⁾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³⁾ 그런데 허남기와 함께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

1) 김학렬, 「재일 조선인 조선어 시문학 개요」, 와세다대학조선문화연구회·해외동포문학편찬사업추진위원회·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공동주최, <재일 조선인 조선어문학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움 자료집>, 2004년 12월 11일, 와세다대학교, 3-4쪽.

2) 민영, 「허남기 선생에게 - 역자로부터 저자에게」, 『화승총의 노래』, 동광출판사, 1988, 107쪽.

3) 허남기 시인에 대한 연구로는, 손지원, 「시인 허남기와 그의 작품 연구」(사예구사

라 시문학의 형성기를 주도했던 강순, 남시우의 시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남시우의 경우에는 1979년부터 총련에서 세운 조선대학 학장을 역임하며 총련계 재일 지식인들과 문인들을 양성하는 데 헌신하였으므로, 남북의 경직된 이데올로기적 상황을 고려할 때 남한 학계나 문단에서 그의 시문학에 직접적인 관심을 보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강순 역시 해방 이후부터 1964년 <조선신보사>를 그만두기까지 총련 산하 문예동을 중심으로 활동한 대표적 시인이었다는 점에서 남한 이데올로기의 폐쇄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 강순의 활동을 살펴보면, 문예동을 탈퇴하고 남한과 북한 양쪽 모두와 비판적 거리를 두면서 재일 디아스포라의 사회역사적 실존을 성찰하는 데 주력하였고, 우리말로 시를 창작하면서 재일 디아스포라의 이중 언어 현실을 깊이 고민했으며, 1960-70년대 남한의 진보적 시인들의 시집을 일본어로 번역 소개함으로써 1960년대 이후 남한 시문학과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교섭에 일익을 담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남한의 학계나 문단에서는 경직된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워 강순 시인을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이러한 소외와 배제의 지점은 남북한 통일문학사를 넘어서 한민족문학사를 지향하는 우리의 문학사 연구가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강순(1918.2.-1987.12.18.)⁴⁾은 경기도 강화에서 태어나서 1936년 일본

도시카쓰 외, 『한국 근대문학과 일본』, 소명출판, 2003.), 하상일, 「해방 직후 재일 조선인 시문학 연구 - 허남기의 시를 중심으로」(『우리말글』 37집, 우리말글학회, 2006. 8.), 김응교,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 계보, 1945-1979 - 허남기, 강순, 김시중 시인」(『인문연구』 55호, 영남대인문과학연구소, 2008. 12.)가 있다.

4) 강순의 본명은 강면성(姜冕星)이다. 이는 필자가 2009년 1월 일본 동경 외곽 가나가와현 사가미야영원에 있는 그의 묘소를 직접 참배하고 묘비명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그는 해방 직후 일본에서 발간된 『백민(白民)』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백민』이 1948년 결성된 <재일조선문학회>의 주축 그룹이었다는 점에서,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형성 과정에서 강순이 얼마나 중요한

으로 건너가 1937년 와세다대학 불문과에 입학했고, 해방 이후에는 교사 생활을 하다가 <조선신보사> 편집국 기자로 활동하였다. 1964년 <조선신보사>에서 『강순시집』을 내놓고서는 총련 내부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좌경적인 비판사업에 반발하여 <조선신보사>를 퇴직하고, 이후 어떤 단체에도 가담하지 않은 채 재일조선인들의 실존을 구체화하는 창작 활동과 김지하, 양성우, 신경림, 김수영, 신동엽, 조태일, 이성부 등 남한의 진보적 시인들의 작품을 일본어로 번역 소개하는 데 남은 생을 다 바쳤다. 그가 낸 시집으로는 한글시집으로 『조선부락』(1953), 『불씨』(등사판, 1956), 허남기, 남시우와 함께 펴낸 3인공동시집 『조국에 드리는 노래』(북한 :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강순시집』(일본 : 강순시집발간회편, 조선신보사, 1964), 『강바람』(일본 : 강순국문시집간행위원회, 梨花書房, 1984), 일본어시집 『날라리(なるなり)』(일본 : 思潮社, 1970), 『斷章』(일본 : 書舎かいおん, 1986) 등이 있다.

강순의 시세계는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의 근원적 정서인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기조로 하지만, 초기에 발간한 『강순시집』의 시와 총련 탈퇴 이후에 발간한 「강바람」의 시는 그 경향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를 드러낸다. 즉 『강순시집』에는 일본에서 우리 민족이 겪는 시련과 고통을 다루면서도 북한에 대한 찬양이나 남한에 대한 비판 등 총련 일꾼으로서의 강한 정치성을 표방한 반면, 총련을 탈퇴한 이후 창작한 시를 주로 수록한 『강바람』에는 총련과 민단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은 중립적 위치에서 재일 디아스포라의 실존을 성찰하는 작품세계가 두드러진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그의 시세계의 변화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므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또한 그의 시에서 이러한 특징은 명확하게 경계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혼재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다만 이러한 구분은 강순 시의 주제의식의 흐름, 즉 총련계 재일 지식인의 입장에서 재일 디아스포라의 민족 정체성과

역할을 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성숙되고 변화되어 왔는지를 비교적 명료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최근 들어 제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됨에 따라 국문학 분야에서도 강순의 시문학에 대한 연구가 몇 편 제출된 바 있고,⁵⁾ 일본에서도 그의 시에 대한 관심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⁶⁾ 그는 우리말 시집과 일본어 시집을 동시에 남겼는데, 일본어 시집에 수록된 시의 대부분은 우리말 시집인 『강순시집』과 『강바람』에 이미 수록된 것을 일본어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크게 변별성이 없다. 그리고 그가 낸 초기 시집으로 『조선부락』과 『불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까지 시집이 발견된 바 없고, 두 시집에 수록된 시 역시 대부분 첫 시집인 『강순시집』에 재수록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강순시집』과 『강바람』을 주요 텍스트로 삼아 논의할 것이다.⁷⁾ 또한 명확히 그 경계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총련을 탈퇴한 1964년 전후 그의 시세계의 변화와 연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편의상 두 시집을 구분하여 차례대로 그 주제의식을 서술하고자 한다.

5) 대표적인 것으로, 윤의섭, 「제일동포 강순 시 연구 - 『강순 시집』을 중심으로」(김학렬 외, 『제일동포 한국어문학의 전개양상과 특징 연구』, 국학자료원, 2007.), 김응교, 앞의 논문, 하상일, 「해방 이후 제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역사와 의미」(『한국문학논총』 제51집, 한국문학회, 2009. 4.)가 있다.

6) 김학렬, 「제일 민족시인 강순 - 시집 『강바람』, 애 통과 사랑과 격정의 세계」(이원고는 제일한국문인협회에서 발간하는 『한흠(大地)』에 2009년 여름호부터 연재되고 있다)와 사이토 마모루, 「望郷の詩人 姜舜」(『植民地と祖國分斷わた生詩人たち』, 일본 : 토요미술사출판사, 2002)가 있다.

7) 현재 제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상당수가 소실되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많다. 민족 정체성의 급격한 약화로 인해 제일 3세대 이후 세대들은 제일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자료들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제일 1세대와 2세대들이 남긴 중요 자료들이 무분별하게 버려지거나 일본의 대학 도서관 창고 등과 같은 곳에 제대로 정리되지도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2. 재일 디아스포라의 민족 정체성과 이데올로기

1) 민족적 표상의 내면화와 민족 분단의 극복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들에게 민족공동체의 의식과 문화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내면화하는 가장 중요한 표상이요 이데올로기였다. 즉 언어, 민속, 풍물, 노래, 놀이 등은 낯선 지역의 땅에서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지켜내는 삶의 원천들이었다. 그러므로 고향 마을의 꽃과 풀, 토속적인 음식과 특산품, 유년 시절의 향수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자연 풍경과 그곳에서의 정겨웠던 놀이에 대한 추억 그리고 민족의 정한을 느낄 수 있는 노래와 악기 등은 재일 디아스포라 시작품에 가장 두드러진 제재로 사용되었다. 이는 조국에 대한 근원적 그리움과 민족 정체성을 관념의 차원이 아닌 실감의 차원에서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⁸⁾

날나리의 리듬은
한 여름의 강변에서
그이가 심어 주신 나의 랑만!

물에 낚시를 잠근 후
해수병얇이 할아버지는 그 때
날나리를 물고 구슬뿐다
기침 소리가 싫다는 너편네의 팔시가
집나간 큰아들이

8) 이러한 특징은 최근 발표된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들의 작품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고향 마을의 토속적인 음식을 제재로 삼아 조국에 대한 향수와 민족적 정체성을 내면화한 시가 상당히 많다. 북한의 평론가 류만은 이러한 특징에 대해, “민속음식과 관련한 여러 시작품에서 풍기는 정서는 동포시인들이 동포들의 생활을 노래한 데서 줄곧 주체성, 민족성을 놓치지 않고 생활체험과 사색을 심화한 결과 이룩된 결실이다.”라고 평가했다. 류만, 「민족의 넋이 높뛰는 애국의 『중소리』 - 시잡지 『중소리』를 읽고, 『중소리』 제27호, 2006년 여름호, 50쪽.

먹고 입는 것이 온통으로
그리고 날라리가

절반이 콩인 주먹밥을 들고 나서던
철부지 손자 새끼는
흑흑 그의 가락이 넘을 지음하여
성을 쌓은 머흘 구름에
한가한 채색을 아로새기고……

그 때의 강변의 백양나무가
지금쯤 얼마나 죽고
또 얼마나 남아 섰을가!

- 「날라리」 전문⁹⁾

날라리는 흔히 태평소라고 불리는 우리의 전통 민속악기로 음색이 아주 거칠고 높아서 대취타(大吹打)나 농악(農樂) 등에서 주로 연주되었는데, 특히 서민들이 즐겼던 남사당놀이의 주요 악기로 풍물굿에서 사용되었다. 아마도 화자는 해방 이전 조국의 어느 강변 마을에서 살았던 소년인 것으로 짐작된다. 한 여름 강변에서 기침병을 앓던 어느 할아버지가 힘겹게 불러대던 날라리 리듬을 떠올리며 화자는 유년의 기억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고향 마을을 추억한다. 그런데 크고 거친 날라리의 리듬을 가만히 듣고 있자면 구슬픈 감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데서 화자의 예사롭지 않은 정서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날라리의 리듬 안에 “기침 소리가 싫다는 여편네”와 “집나간 큰아들”과 “철부지 손자 새끼”의 이야기가 서사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때의 강변의 백양나무가/지금쯤 얼마나 죽고/또 얼마나 남아 섰을가!”라는 마지막 연에는 날라리의 구슬픔에 새겨진 제일 디아스포라의 깊은 탄식이 내면화되어 있는 것이

9) 이하 2장에 인용된 시는 모두 『강순시집』에 수록된 것이므로 따로 출전을 밝히지 않기로 함.

다.¹⁰⁾ 인용시는 강화도가 고향인 강순 시인 자신의 실제 경험을 형상화한 것이기도 하면서, 우리 민족공동체의 보편적 이야기를 서사화한 것이기도 하다. 마치 김소월의 시에 내재된 민족의 정한(情恨)을 떠올리거나, 백석의 시에 서사화된 민중들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강물을 따라 흐르는 날라리의 리듬은 조국에 대한 근원적 향수와 더불어 한(恨)의 정서로 응어리진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징성은 “이 피리!/아버지의 아버지/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적부터/대대의 감정을 흠뻑 담으며/전해 온다는 피리”, “이제 매캐하니 콧등을 쓸 구려 놓고/젊다나 젊은 후손의 입설에 물리여/한 가닥 새 가락이 잡히는 피리아/흐느끼다 마는 피리아/그러나 너는 이미/우리의 자리에서 떠날 가락이어야 하겠다.”(「피리」)와 같이, 그의 시의 밑바탕을 이루는 근원적

10) 강순은 1970년 일본어시집 『날라리(なるなり)』(思潮社)를 발간하면서 이 시를 개작하였으나 발표연도는 원래 창작연도인 1948년으로 그대로 기록하였다. 그런데 『강순시집』에 수록된 시와 『날라리(なるなり)』에 수록된 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처음 발표된 것과는 달리 날라리에 얽힌 인물들의 사연이 훨씬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이야기시의 성격이 더욱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날라리(なるなり)』에 수록된 시의 원문과 번역문은 아래와 같다.(번역 : 김학렬 시인) 날라리의 리듬은/백양나무 가로수 아름답던 강변에서/한여름 오후 할아버지가/ 그의 첫손자에게 심어준 뜨거운 집념//섬에 열흘 만에 오는 장날에 할아버지는/ 시장 길가의 언제나 그 돌 우에 앉아/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만 보고 계셨다/할아버지가 심심해 토방에서/뉘싯대를 꺼내시면 철부지 손자새끼는/어머니께서 주신 절반이 콩인 주먹밥을 들고 나셨다/그래서 그 뒤를 따랐다//물에 잠근 뉘시가 움직거리지 않으면/손자새끼는 돌맹이를 주어 그 언저리에 던졌다/그래도 해수병없이 할아버지는/그리 성난 기색을 보이지 않으셨다/그래서 품에서 들추어낸/날라리를 물고 구슬땀다//날라리 음식은 /노상 슬픔에 겨웠다/매미소리 속 구슬땀 울림이 흐르면/손자새끼는 할아버지 무릎 위에 머리를 얹어/새푸른 하늘가에 성을 쌓은 구름에/한가한 채색을 아로새기고 싶었지……//그때 벌써/나라는 타국의 손에 앓였었다/고구(故旧)의 마음도 거칠어지고/할아버지 가슴속은 모진 바람이 불어제꼈다/밤새도록 기침에 시달려도/근한 할머니의 잠은 쉬이 깨어나지 않았다/할아버지는 몇 번이나 일어서/뒤따르는 집요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설령(雪嶺)너머 사라진 큰아들 남겨간 편지를 되풀이 읽으셨다/전설(傳說)에 차고 의병(義兵)으로 알려진/내 고향 강변의 백양나무가/지금쯤 얼마나 죽고/또 얼마나 남아 섰을가

정서를 내재화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해방 이후에도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디아스포라적 주체로서, 조국에 대한 근원적 그리움을 민족적 표상을 통해 형상화함으로써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지켜나가고자 했던 것이다.

해방 당시 일본에 있었던 재일조선인의 수는 조선 총인구의 10퍼센트에 달했다. 이들 대부분은 일본 제국주의 정책의 희생양으로, 아시아 침략을 위한 인적 자원 확보 때문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주로 탄광이나 군수산업, 토목사업에 혹사당하며 참담한 생활을 했다. 그러므로 재일조선인들에게 일본의 패전, 즉 조국의 해방이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격 그 자체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었다. 해방이 되자마자 대부분의 재일조선인들이 귀국선을 타고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가 자유를 찾고자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귀국 동포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내 정세의 불안과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일본 땅에서의 차별과 멸시를 무릅쓰면서까지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수가 점점 더 늘어났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귀국을 포기하고 일본에 남으려는 동포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재일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식민지 시기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수난의 세월을 겪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은 패전에도 불구하고 재일조선인들에게 일본인 되기를 강요하는 식민 정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게다가 일본을 간접통치한 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는 미국 정부의 비호 아래 재일조선인에 대한 문제를 일본의 권한으로 위임하였는데, 그 결과 일본은 재일조선인을 차별하고 탄압하는 명분을 확보함으로써 식민 정책의 유지를 합리화하는 방패막이로 삼았다. 또한 이 당시 재일조선인들 자체의 이념적 혼란과 갈등도 극에 달해, 각 지역 조선 부락의 협화회(協和會) 조직원들이 해방 이전에는 내선일체를 외쳐놓고서는 해방 이후에는 갑자기 민족 조직의 활동가로 변신하는 등 재일조선인 내부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도 급격하게 무너져갔다.

해안선 밝아 오며
산들은 오랜 먼지를 털고 기동한다
삼천만 동포들은
종이 되어 울려 퍼지고
무궁화 강산은 해방으로 흐느낀다

그러나 그 감격
며칠이나 지탱하였던가
의자에 눈이 먼 점성사(占星師)는
잔악한 사냥을 준비하고
신새벽 부엌에서
식도를 먼저 간다

열쇠 같은 지도자가 어데 있는가
자기 원주를 미친 듯 그어대고
다시금 사대주의의 한류는 밀어 닿는다
침입자의 연출로
검은 기가 올랐다

생무덤은 날로 늘어 가고
지혜 있는 입이 찢겨 떨어진다
다시 병어리 된 남반부에
해산은 너무나 고귀한 진통이다
멀리 동산을 향하여
당나귀 같이 운다 겨레가
대낮에 절통던 어젯날처럼.

- 「멀리 동산을 바라보며」 전문

강순은 해방이 분단으로 고착화되는 조국의 현실과 외세에 의존해 권력을 차지하려는 위정자들의 탐욕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의자에 눈이 먼 점성사”들의 “잔악한 사냥”과 “침입자의 연출”에 휘둘리는 “사대주의의 한류” 앞에서 속수무책인 조국의 현실은 배반의 역사에 다름 아니었

다. 조국 분단의 상황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목숨을 건 민중들의 투쟁이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생무덤은 날로 늘어 가고/지혜 있는 입이 찢겨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해방이 식민을 극복하는 진정한 해방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실상 또 다른 식민의 현실을 스스로 조장하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강순은 이러한 재일조선인들의 절망적 현실을 가슴으로 끌어안으며 <조선 부락 시초>라는 소재목 하에 여러 작품을 남겼다. 재일조선인들이 함께 모여 살던 조선인 집단부락의 모습을 형상화한 이 작품¹¹⁾은 당시 재일조선인들이 겪은 가혹한 현실을 공동체적 장소성의 문제로 환기시킨 것이다.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민족적 편견과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재일조선인들은 대체로 집단부락을 이루어 함께 생활했는데, 대부분 육체노동이나 폐품수집, 음식점 등을 하면서 간신히 생계를 이어나가는 힘겨운 처지였다. “웅덩이를 메운 자리”, “시궁창이 넘어 나다 펼쳐 마르는 곳”에 집을 짓고 “한수도에/300여 가호/물경 153 명의 목이 매여 달렸”(「수도」)던 재일조선인들의 생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참담함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조선인들은 민족공동체로서의 동지적 연대를 잃지 않았으며, “도시의 쓰레기로 메운 자리”에 “해바라기”도 피우고 “상추”도 길러서 “낮상에는 집집이 조선 상추쌈”을 먹으면서 통일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비록 “고양이 이마만한 마당”이지만, 그래도 “기쁨과 설음이 교환되는 마당”(「동네 마당」) 이기에, 그들에게 “동네 마당”은 분단의 상처와 재일 디아스포라의 고통을 동시에 극복하는 공동체적 장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11) 이러한 공간의식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대표적인 시집으로 김시종의 『이카이노 시집(猪飼野詩集)』(1978)이 있다. 이 시집은 김시종이 1975년 봄부터 1977년 여름까지 10회에 걸쳐 『삼천리』에 연재한 것을 모은 작품집이다. 『이카이노 시집(猪飼野詩集)』은 오사카 재일 조선인 밀집지역인 이카이노의 조선인 민중들의 생활을 제재로 재일조선인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대표적 시집이다.

2) 총련애국사업의 선전선동과 북한에 대한 찬양

1948년 남북한이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하자 재일조선인들 역시 두 개의 조직, 즉 북의 노선을 지지하는 재일조선인연맹(조련)과 남의 이념을 추종했던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민단)으로 이원화되었다. 두 조직은 재일조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보다는 남북한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르는 서로 다른 목적성을 강조함으로써 재일조선인 사회는 남북의 대립만큼이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다. 조련은 1949년 한신(阪神)교육투쟁으로 미군정에 의해 강제해산당한 이후 일부 맹원들이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에 가담하여 한동안 명맥을 유지하다가 1955년 민전을 해체하고 재일조선인총연합(총련)을 결성하였는데, 이때부터 재일조선인들은 자신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는 전혀 다르게 민단과 총련으로 분리된 두 조직과 이들 조직이 각각 지지하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어느 한 쪽에 대한 선택을 강요당하는 분단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당시 재일조선인들의 문학 활동 역시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구속과 제약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특히 총련은 1959년 북한의 주체문예이론을 실천하는 문예동을 결성하여 총련계 재일조선인 문인들의 이념적 조직화를 시도하였다. 이때부터 문예동은 북한문학의 노선을 맹종하고 수령형상문학을 주도함으로써 사실상 디아스포라적 주체로서의 자율성과 실존성을 포기하는 지나친 좌경화에 빠져 들고 말았다.¹²⁾ 또한 민족주체의식을 명분으로 내세워 우리말 글쓰기를

12) 문예동은 북한의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창작 지침을 그대로 수용,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리얼리즘을 북한식의 사회주의 이념에 근거하여 주체사실주의 창작방법론으로 정초해간다. 김일성과 북한에 대한 충성심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이를 위해 총련애국사업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 김일성의 교시, 북한노동당의 노선, 그리고 조직 강령 등이 문예동의 문학의 준거였다. 이상갑, 「재일조선인 문학비평의 민족문화적 의미 - 조총련 문학비평의 특징과 이중 언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68집, 한국언어문학회, 2009년 3월, 413쪽.

공식화함에 따라¹³⁾ 태생적으로 우리말보다는 일본어에 익숙했던 상당수의 재일 디아스포라 문인들이 철저하게 매도당하는 상황에 내몰렸는데, 이러한 극단적 문예정책에 대한 반대로 문예동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문인들 가운데 일부가 총련을 탈퇴하여 독자노선을 걷는 또 다른 대립과 갈등을 불러오고 말았다.¹⁴⁾

총련 결성 직후에 발표된 강순의 시는 문예동의 노선에 충실히 따르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냈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 찬양 속에서 남한의 정치현실에 대한 냉소와 비판을 거침없이 토로하였

13) 당시 문예동 초대위원장이었던 허남기는 일본어 시쓰기를 그만두고 우리말 시쓰기로 전환하였다. 그는 과거 자신의 일본어 시쓰기에 대해 상당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죽음을 앞둔 말년에 이르러 일본어로 썼던 자신의 작품을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에 전념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을 한 데 모아 그의 아내 채숙일이 『조국에 바치여』(북한: 평양출판사, 1992)를 출간하였다. 이 선집에는 그의 일본어 시작품 『조선 겨울 이야기』, 『선물』, 『화승총의 노래』, 『조선해협』 등이 한글로 번역되어(?) 수록되어 있다.

14) 김시중은 1957년 발표한 에세이 「장님과 뱀의 입씨름」과 시 「오사카 총련」을 통해 김일성주의를 맹신하는 총련 조직의 문학적 노선을 비판했다가 조직의 정치적 비판을 받고 이후 총련과는 거리를 둔 채 일본어 시 창작에만 매진하였다. 현재 총련계 재일조선인문학계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김시중의 창작과 평론의 주된 주장을 종합해보면, 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은 곧 도식주의, 교조주의를 낳는다. 따라서 재일이라는 상황의 특수성에 맞는 창작방법이 필요하다는 수정주의적 견해를 펴뜨리고, ② 작품의 내용에서 조선적이고 애국적이고 사실주의적인 것보다 ‘현실적’이고 ‘부정적’이고 자연주의적인 것을 더 많이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둘러싸고 당시 재일조선문학회를 중심으로 평론, 좌담회를 통하여 치열한 논전이 전개되었다.” 당시 허남기는 「김시중 동무의 일문시집 『지평선』에 관련하여」(『조선문예』 1957년 6월)에서 김시중의 희망을 잃고 난 공허한 어두운 시세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저항을 표시하면서 그 요인을 작가 자신의 지향성에서 찾았는데, “일본의 반제반미투쟁을 그려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인의 그것과 조선인 김시중의 그것은 분명히 다른 각도가 있어야 한다.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 있는 발의 위치와 각도에 있다. 자기 발판을 다시 살펴볼 때가 아닐까? 그리고 발의 위치와 발의 각도를 다시 확실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였다. 맹복실, 「재일조선문학의 주체확립을 위한 투쟁 - 1955-1959년 평론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학보』 16호, 1999. 6. 25. 50-51쪽.

고, 총련애국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선전선동의 목적시를 발표하는 등 민중적 서정성에 바탕을 두었던 이전의 시세계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¹⁵⁾

평양은 조선의 수도
평양은 조선 인민의 심장부

평양의 전설은
못 다 길어 낼 샘물
평양은 지금
새로운 전설로 넘쳐 난다

젯더미 속에서도 평양은
날아 날 불사조를 낳았다
평양의 하늘에는 무수히
천리마 무지개 다리가 와 닿는다

평양의 기는
창조와 행복의 표증
평양의 사랑은
거듭나려는 동포들 하나 같이 감싸 안는다

모란봉은 이미

15) 이와 같은 시세계로의 변화 이전의 강순 시의 전반적 경향에 대해 이경수는, 대체로 재일동포 한국어 시문학에서 허남기의 시가 사회비판적 성향이 강하고 남시우의 시가 전통적 율조에 바탕을 두었다면 강순의 시는 시적 언어에 대한 추구가 남달랐다고 평가했다. “강순의 시는 이념적 지향이 좀 더 앞서서 동시대 다른 시인들의 시와 비교할 때 시적 언어에 대한 고투의 흔적이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자연주의적, 예술지상주의적 경향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이념적 지향이 강한 재일동포 한국어 시문학에서 이러한 강순 시인의 존재는 특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경수, 『재일동포 한국어 시문학의 전개과정』, 김학렬 외, 앞의 책, 111쪽.

꿈꾸는 이의 보금자리
대동강 흐르는 나무에
끊임없는 축제의 꽃불이 오른다

조선 인민은 주야로 열모한다
평양에로! 평양에로!
남반부는 목타게 기다린다
평양의 큰 날개가 드리워질 그 날을

평양은 다시없는 승리의 참모부
평양이 있음으로 하여 혁명의 격파는 인다

- 「평양」 전문

1961년에 발표된 인용시는 강순의 시세계가 총련의 노선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평양은 북한의 제유(提喻)로, “평양의 전설은 못 다 길어 낼 샘물”, “젯더미 속에서도 평양은/ 날아 날 불사조를 낳았다/평양의 하늘에는 무수히/천리마 무지개 다리가 와 닿는다”에서처럼, 평양을 신화적 유토피아의 세계로 격상시키려는 선전선동의 목적성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평양은 “창조와 행복의 표증”이고 “동포들 하나 같이 감싸 안는”평화와 안식의 장소이므로, 재일조선인들은 “평양에로! 평양에로!”를 연달아 외치며 조국(북한)으로의 귀환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남한의 동포들은 가난의 고통과 사대주의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한 유토피아로서의 “평양의 큰 날개 드리워질 그 날”을 학수고대한다고 말한다. 1950년대 중반의 북한은 천리마 운동에 의한 사회주의 경제의 약진이 두드러졌으며 김일성의 유일지도 체제가 사실상 확립되었던 시기이다. 게다가 남한 정부가 반공(反共)을 국시로 내세우며 재일조선인의 지위와 처우에 무관심했던 것과는 달리, 북한은 재일조선인을 해외공민으로 규정하고 교육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 재일조선인 사

회의 분위기는 해방 이후 반공의 틀에 갇혀 자신들을 좌경시하며 철저하게 외면해온 남한보다는 조선인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에 앞장서는 등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한 북한을 적극 지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순의 장시 「귀국선」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 하에서 조국(북한)으로 귀환하는 동포들의 희망과 감격을 다소 과장된 어조로 노래하였다.

나더러 오라 하시니
나 무엇을 서슴하리오
나더러 오라 하시니
목메여 가슴 설레임이여
나더러 날아 오라 하시니
온 몸이 나래 되어 퍼덕임이여

단번에 조국이 지척에 나타나고
마음은 이미 조국에 가 앉은 듯
이 날에 사는 기쁨을
나 무엇에 비할 수 있으며
누구가 다 형용할 수 있으리오

나 오기를 기다린다 하시니
신부의 마음 같이 수줍어져라
나 어서 오길 기다린다 하시니
당장 앉은 자리를 수습하여
영원히 안기려 떠날 따름이어서

- 「귀국선」 중에서

「귀국선」은 모두 10편으로 묶여진 장시인데, 인용시는 그 가운데 첫 번째 시에 해당한다. 시 전반에 걸쳐 조국으로의 귀환이 “온갖 가난과 굴욕”과 “이 땅의 여독과 낡은 악습들”을 송두리째 벗어던지는, “태양이

어두워지더라도/태양이 다시 솟아 날 것을/바라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이제 우리에게 비친 태양은/서녘이 없는 광명”의 세상이라는 가슴 벅찬 기대와 감동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시의 화자는 “조국을 힘입어 새 사람 되기 원”하고, “제각기 더욱 빛날/우리네의 미래를 지어 내”기 위해 온몸 바칠 것을 다짐하며 귀국선에 오르는 재일조선인들의 영광에 절대적 지지와 찬사를 보낸다.¹⁶⁾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재일조선인들의 귀국은 치안의 대상인 구식민지 출신자들을 합법적으로 국외 추방시키는 실익을 얻으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는 인도주의를 실천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거양득의 결과를 가져오는 이점이 있었다. 그리고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재일조선인들의 복송은 남북의 극단적 대립 상황에서 북한이 우위를 확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우려할 만한 결과로 받아들여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당시 북한은 복송정책의 성공을 통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와 노동력 확보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남한보다 우위를 확보하는 데 충력을 기울였다. 1960년대 초반 강순의 시는 이러한 북한의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문예동 활동을 통해 총련애국사업을 선전선동하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¹⁷⁾

16) 당시 재일조선인 사회의 분위기를 윤건차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내 기억으로 볼 때 당시 공화국으로의 귀국은 기쁜 일, 격려해야 할 일, 꿈이 있는 일, 당연한 일이라고 다수의 사람이 받아들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사회 전체가 좌익에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 있었으며, 일본사회당이나 일본공산당 그리고 일조협회(日朝協會) 등 각종 단체는 총련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재일사회 전체가 ‘반미’, ‘반키시(岸)정권’, ‘반이승만’이었으며 동시에 “김일성원수 만세”였다고 말해도 좋다. 차별적인 사회인 일본을 포기하고 전재산을 가지고 귀국하는 일은 일생의 일대 전기는 되어도 결코 모험도 도박도 더구나 악몽도 아니었다. 1962년에 상영되었던 요시나가 사유리(吉永小百合) 주연의 영화 「큐폴라가 있는 거리」에 이 집단귀국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 정경은 많은 사람이 서로 기뻐하며 격려하고 이별을 아쉬워하는 장면이었다.” 윤건차, 박진우 외 옮김, 『교착된 사상의 현대사 - 1945년 이후의 한국·일본·재일조선인』, 창비, 2009, 197-198쪽.

17) 이러한 그의 시적 경향은 “운동이란 난데없는 구속이냐!”(「강바람」)와 같은 단

3. 조국 통일에의 염원과 재일 디아스포라의 실존

1) 재일조선인 사회의 이원화와 반통일세력에 대한 비판

1960년대 재일조선인 사회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로 인해 민단과 총련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심해져 극단적 이원화의 양상을 드러냈다.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한일법적지위협정’이 체결되면서 일본 내에서 박정희 정권의 반공정책이 관철되었고, 그 결과 민단과 총련으로 이원화된 재일조선인의 적대적 태도는 더욱 노골화되었던 것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재일조선인의 인권보다는 북한을 지지하는 총련을 타도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었으므로, 일본 정부가 부여하는 ‘협정영주권’을 미끼로 재일조선인들을 남한으로 회유하려 했다. 또한 일본의 자본을 끌어들이며 근대화와 경제부흥을 이룸으로써 자신의 권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리고 일본은 이 조약을 명분으로 과거 자신들의 침략의 역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관철시키려 했다. 이와 같은 정략적 한일 관계에 맞서 북한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으려는 남한의 반통일정책을 비판하는 강경 노선으로 팽팽하게 대립하였다. 총련 역시 북한의 강경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재일조선인 사회의 좌경화에 박차를 가했고, 문예동은 총련의 지침에 따라 재일조선인들의 문학을 북한의 정치적 노선에 종속시키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치중했다. 해방 이후부터 총련계 재일 지식

식을 내뱉으며 총련 조직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된다. 비록 총련 내부의 좌경적인 비판사업에 반발해 조직을 떠나 야인의 길을 선택했지만, 남북 모두에 비판적 거리를 두면서 조국 통일과 재일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남은 생애를 헌신했다. 이런 점에서 총련의 대표적 시인이자 이론가인 김학렬은 “확실히 그 민족 사랑과 통일 심원의 격정으로, 그 구수한 시어, 진실하고 정서에 넘치는 극적인 생활표상과 생활철학으로 강순 시문학은 재일문학사에 찬연한 빛을 뿌리는 귀중한 보배라 할 수 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김학렬, 「재일 민족시인 강순」, 앞의 글, 169쪽.

인들과 밀접하게 사상적 교류를 했던 일본공산당과 총련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이다. 당시 일본공산당은 김일성주위에 매몰된 총련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였고, 총련에서는 일본공산당이 한일조약을 일본제국주의의 부활이란 측면에서 비판하지 못한 것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문예동에 소속된 문인들 중 일부는 총련의 지나친 좌경화 사업에 반발하여 조직을 이탈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러한 총련 내부의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재일조선인사회의 분열과 대립은 더욱 극단으로 치달았다.

강순의 두 번째 시집 『강바람』은 이와 같은 혼란과 혼동에 휩싸여 있는 재일 디아스포라의 내면을 정직하게 보여주었다. 비록 오랫동안 몸담았던 총련 조직을 떠났지만, 그의 선택은 일본의 이간(離間)정책으로 재일조선인 사회의 이원화가 더욱 노골화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자기성찰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총련이든 민단이든 정치권력에 지나치게 종속되어, 재일조선인들의 생활현실은 외면한 채 오히려 민족 간의 극단적 대립을 조장하는 태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강순은 1967년 <조선신보사>를 퇴직한 이후 어떤 조직에도 가담하지 않은 채, 조국 통일을 지향하는 작가적 양심과 신념을 지키며 오로지 창작활동에만 전념하였던 것이다.

이제는 이미
 가던 정마저 싸웠으니
 남의 눈앞까지 질러막고
 입만 살아 너덜거리지 말지라.
 너희들은 멀리 떠나라
 종시 한낱 티눈에 불과하니
 그 지긋지긋도 한 뻘뻘스러움이 사라져서
 뻘한 餘地라도 갖게 하라.
 오늘날의 양식과 물줄기를 더듬어
 眼目的 자유를 선선히 갖게 하라.

운동이란 난데없는 구속이냐!
 어느 약속도 금지도 기념도 소용없으니
 불어오는 강바람을 쏘이게 하라.
 단지 그로써 흡족하리니
 자라며 보던 포푸라江邊에서
 답답한 가슴을 풀어헤치게 하라.
 어린 날이 움질거리며 어머니 소리 들리는
 보리밭의 햇빛속을 달려오는 강바람을
 온몸으로 쏘이며 蘇生케 하라.
 마침내 나역시 다른이와 같이
 영문 모를 지청구를 피치 못해
 숨통 막혀 말리죽을 것이지만
 이제는 그 시끄러운 악다구니를 떠나
 心願이 달아오른 강바람을 쏘이게 하라.

- 「강바람」 전문¹⁸⁾

강순은 시집 『강바람』의 「머리시」에서 “지난날 밟던 계절은 흘러보내고/새신 끌어내어 한자리를 마련하라”고 하였다. 또한 남북 분단으로 인해 갈라진 재일조선인들만이라도 “버성긴 마음 아우러지어/예루화 大明天地/우리 쌍피리 불며 맞춤 한번 추어보자”고 외쳤다. 그는 『강바람』이 민단과 총련으로 벌어진 재일조선인들의 “버성긴 마음”을 이어 주는 “새신”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대했다. 즉 지난 날 “날라리”소리에 한마음이 되었던 고향 마을의 정경처럼, 민단과 총련 모두 이념을 벗어던지고 동네마당에 함께 모여 한바탕 대동놀이를 즐기는 민족 통합의 장을 열어낼 것을 소망했던 것이다. 재일 디아스포라의 생활을 “구속”하는 분단 현실을 극복하고, “어머니 소리” 앞에서는 결코 서로를 외면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되찾아 “강바람을/온몸으로 쏘이며 소생”하기를 진정으로 염원했던 것이다. 그가 말하는 “안목의 자유”란 스스로를 억압하는 이데올

18) 이하 3장에 인용된 시는 모두 『강바람』에 수록된 것이므로 따로 출전을 밝히지 않기로 함.

로기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남과 북, 민단과 총련 모두가 한민족의 이름으로 화합과 연대의 삶을 이루는 재일 디아스포라의 미래상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재일조선인 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조국의 분단 현실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자각함으로써, 민족 분단의 극복을 가장 큰 사명으로 하는 재일 디아스포라의 실천적 태도와 의지를 확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시적 지향은 『강바람』 전편에 걸쳐 형상화되어 있는데, “혈육과 고향을 떠나 수십년 외지에 살며, 그 사는 사정에 의해 왕래도 없다가 별안간 부모의 부고에 접하는 순간, 우리는 사상이니 형편이니 원수니 하기보다 먼저 한없는 일루의 눈물을 머금게 된다”(「遠隔地」), “원수이기 이전에 우리도 형제일 것을/미리 정해 놓고/무슨 짝으로 묶어세우는가”(「넋두리」)와 같은 표현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다.

해방 이후 미국은 GHQ를 통해 일본과 한반도의 남부를 지배하였는데, 한반도가 우리 민족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어 직접 통치를 받은 반면, 일본은 미국의 단독 점령 하에 친미 성향의 일본인이 GHQ의 승인 아래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간접 통치를 받았다. 즉 미국이 소련을 경계해야 한다는 이념적·정치적 이유를 앞세워 친미 성향의 일본 정치인들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해방은 되었지만 일본 내의 재일조선인들의 실상은 미국의 비호 아래 있었던 일본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¹⁹⁾ 따라서 재일조선

19) 미군은 군정을 실시하면서 조선총독부의 기구를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통치시대의 법률체계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총독부에서 일했던 친일파 조선인 직원 등을 다수 고용하는 등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 결과 한반도는 해방 조국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 제창이 1946년 1월 14일 경북 공에서 개최된 태극기 게양식 이후에서야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미군은 조선에 대해 아무런 예비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의 민족의식, 특히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감정이나 의식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한반도에서의 정책을 해방 민중과의 연대를 통해 논의하지 않고 오히려 패전국 일본이나 친일 세

인들은 반일, 반미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조국 분단의 상황을 더욱 조장하고 이를 영구화하려는 일본과 미국의 정략적 야합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식민지 역사에 대한 뼈저린 기억을 송두리째 망각한 채 일본에 영합해버린, 그래서 민족 정체성을 외면하거나 상실해버린 재일조선인 사회의 내부적 갈등과 모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강순의 시는 이러한 반통일 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통해 분단 조국의 현실을 극복하는 재일 디아스포라 지식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고자 했다.

영버튼하여 찬바람이 왕래하고
남남들이 다 되어
정다운 話題는 간데온데가 없다.
원수쌈 같다가도
집안에 불이 떨어지는 경황이면
무더기로 나서서 같이 싸우던
그 핏줄기의 熱氣는 어데 갔느냐.

허니 날이 갈수록
저 얼음산 치솟아 오르는
障壁의 안타까움,
서릿발에 武裝力만 거세가는데
그래 기어이 虎視만이 탐탐해야겠는가.

양키의 편치
일본土種인 샹괵이의 발광
그리고 우리들의 문을 막아선 것이
어떤 안도독인지를 알면서도
통일국가의 미해의 市民들은
눈물만 머금고 왜 입이 닫혔냐.

- 「발밑의 無言」 전문

강순은 두 번째 시집 『강바람』을 묶으면서 “분단의 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활로인 조국의 통일을 心願하여 갈팡거리는 摸索과 고통과 투쟁을 그린 것”²⁰⁾을 한데 모아 엮었음을 밝혔다. 식민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방은 되었지만 여전히 조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채 집단부락을 이루어 살았던, 그래서 일본의 차별과 멸시 속에서도 한 민족, 한 동포로서 민족적 정서와 유대를 잃지 않았던 재일조선인들의 공동체의식이, 이제는 “엉버튼하여 찬바람이 왕래하고/남남들이 다 되어” “호시탐탐” “양키의 편치/일본토종인 샅쟁이의 발광” 앞에 무기력해져 가는 현실을 바라보는 시인의 안타까운 심정이 절절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무더기로 나서서 같이 싸우던/그 핏줄기의 열기는 어데 갔느냐”라는 회한과 탄식에는, 재일 3세대 이후가 주축이 된 재일동포 사회에서 민족 정체성은 한낱 관념으로 떨어지고 만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가슴 깊이 내면화되어 있다. 게다가 민족의 통일을 가로 막는 반통일 세력의 중심에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외세가 아닌 “안도독”이 있다는 충격적 사실은, 통일을 위한 실천에 헌신해온 시인에게 심한 좌절과 허무를 안겨주는 배반의 상황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시인은 “통일국가의 미래의 시민들은/눈물만 머금고 왜 입이 단혔나”라는 강한 어조로 “발밑의 無言”으로 일본 체제에 동화되어 가는 재일조선인 사회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했다. “삶은 너무나 고되나/억천번 쓰러지는 지경에서도/참된 생활을 위하여서는 또한/한결같이 일떠서야 하리라”(「삶」)는 결연한 의지가 재일 디아스포라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뿌리 내리기를 진정으로 열망했다. 디아스포라적 주체로서 일본에서 살아가는 재일조선인들에게 통일은 더 이상 관념적이고 당위적인 목표가 아닌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문제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통일의 미래를 열어내지 못하고 “한 없는 향락에 침몰하고 말” 민족의 운명을 무기력하게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비록 통일을 향한 실천이 지독한

20) 강순, 「詩集을 엮어놓고」, 『강바람』, 317-318쪽.

무거움이 짓누르는 고통을 안겨주더라도 “자기의 짐을, 우리 모두의 짐을”(「무겁다」) 슬기롭게 짊어지는 실천적 태도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했던 것이다.

2) 이중 언어의 현실과 재일조선인의 실존에 대한 성찰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모어(母語)로서의 일본어와 모국어(母國語)로서의 우리말 사이에서 대립하고 갈등해 온 이중 언어의 현실은 상당히 침예한 모순임에 틀림없다. 특히 현재 재일조선인 사회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재일 3세대 이후 세대들에게 있어서 모국어로서의 우리말은 민족적 표상으로서의 추상적 관념 상태로 남아 있을 뿐 생활의 언어로는 거의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러한 언어 현실 내부에 은폐된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재일조선인들의 공동체의식이 점점 약화되고 있어서, 더 이상 재일조선인으로서의 민족성과 주체성을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다. 물론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여전히 식민지 지배국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재일조선인들에게 생활언어로서의 일본어를 완전히 버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 한계 때문에 재일조선인들은 일본어를 직접적으로 쓰면서도 일본인의 시각과 감성과 사유를 깨뜨리는, 그래서 재일 디아스포라의 실존적 언어로 일본어의 의미를 재발견하고자 노력하기도 했다.²¹⁾ 하지만 이러한 이중 언

21) 최근 김시중은 일본어로 시를 쓰는 자신의 언어의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나는 언어를 펼치기보다 자신을 형성해온 언어를, 의식의 웅덩이 같은 일본어를 시의 필터로 걸러내는 작업에 몰두합니다. 그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는 자꾸만 딱딱하게 굳어지고 문장은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에세이 하나 쓰는 데에도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힘겹게 하여 어깨만 결릴 뿐입니다. 에세이를 쓰면서도 길은 시 쓰기와 비슷합니다.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다변투로 글을 써도 좋으려면, 그러면 단박에 능숙한 일본어를 구사하는 자신으로

어 현실에 대한 재일조선인들의 시각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특히 총련계 지식인들은 일본어 글쓰기를 민족을 배반하는 친일 행위로까지 강하게 매도하였다. 강순은 이러한 재일 디아스포라의 이중 언어 현실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거나 반민족적 행위로 매도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의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우리말을 쓰는 게 부끄러운 처신”이라는 사대주의적 태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며, 식민의 그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일본어 사용을 자랑스럽게 합리화하는 태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대처하고자 했다.

내 역시 오래도록
일본말 사태에 묻혀 살아
이미 風化가 짙은 폐물이다.
그래도 죽은 듯이 나는 덩덤히 앉았다가
본국사람을 어찌다가 만나서
대견타는 慰勞를 받을 때
어린애처럼 발랄한 기쁨을 참지 못하나
잊어먹고 사는 희박한 내 정신이 생각나서
슬며시 쥐구멍을 찾아낸다.

이 부끄럼증에서 겨우 구원의 손을 본다.
또는 내 나이가 건져 주던 그 기회도
다른 장소에선 말끔히 잊으며
그러니만큼 주위의 다른 동배들에게
아무말도 않고 점잔히 默過한다.
일본말로 생각하고
일본말로 물마시듯 하는
이 思想史의 패배도

되돌아갈까 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의 시는 이미 없다’라고 스스로 만들어 자신에게 강요한 강박관념에 얽매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사고 질서에 완고하게 눌러앉은 일본어에 대한 나의 자학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김시중, 「내 안의 일본과 일본어」, 『아시아』 2008년 봄호, 113쪽.

국제생활하는 必要惡의 동일성으로
자기를 감추는 차양이 된다.

우리말을 쓰는 게 부끄러운 처신
우리말을 아니쓰는 부끄러운 천대
지난날 우리는 내남없이
우리말이 우리의 표적이오, 우리의 소원이오, 우리의 깃발이었다.
우리말이 우리말로 돌아와도
우리의 쓰라림과 자랑과 주장도
우리는 우리말을 아니쓰고 판말을 쓴다.
그리움도 고동도 추켜شم도 포옹도 없이
일본서의 우리의 문학의 旗는
땀 얼굴로 판전을 벌린다.
잊어먹고 사는 해는 자꾸 가고
질편한 외국말 바람만 일으키니
구슬퍼 육할 입도 아니 열린다.

- 「정신이 다 나가서」 전문(『강바람』, 198-199쪽)

“지난날 우리는 내남없이/우리말이 우리의 표적이오, 우리의 소원이오, 우리의 깃발”이었지만, 지금 “우리말이 우리말로 돌아와도” “우리는 우리말을 아니쓰고 판말을 쓴다.”는 당대의 언어적 식민 상황을 향해, 강순은 “정신이 다 나가서”라는 직설적인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일본말로 생각하고/일본말로 물마시듯 하는” 재일조선인들의 삶은 “사상사의 패배”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자기를 감추는 차양”이 될 뿐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말을 쓰는 게 부끄러운 처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말을 아니쓰는 부끄러운 천대”를 진정으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언어는 단순한 표기수단의 차원을 넘어서 민족의 내면을 규정하는 정신과 태도의 산물이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강순의 비판적 목소리에 크게 귀 기울이지 않은 탓인지 지금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은 일본어 일색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 결과 현재 일본문학계의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에서 우리말로 된 문학은 전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일본어로 된 문학은 주류이고 우리말로 된 문학은 비주류라는 관점이나, 일본어로 된 문학은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만 우리말로 된 문학은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편협한 시각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²²⁾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에서 우리말 쓰기의 문제는 이데올로기적 관념이 아닌 재일조선인의 실존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실천이 될 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우리말에 대한 완고한 집착도 의미 있는 문제 의식이지만, 그보다 앞서 재일조선인들의 실존적 삶을 형상화하는 언어의 실천적 가치와 지향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강순은 총련을 떠난 이후부터 남한의 시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매달렸다. 아마도 우리말에 익숙하지 못한 재일조선인들에게 조국의 시를 소개하고 알리는 데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일본어로 쓰든 우리말로 쓰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분단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는 민족 정체성의 확립이 재일조선인의

22) 한국문학 연구자와는 달리, 일본문학 전공자들은 재일조선인 문학 연구라 하면 아예 일본어로 쓰여진 시만을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이들은 두 가지 이유로 재일조선인 ‘조선어 문학’을 거부한다. 첫째는 문예동 동인이 갖고 있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반대한다. 둘째로 문예동 시인들의 시는 작품 수준이 낮다고 외면한다. 가령, 제30회 지구상(地球賞)을 받은 시선집 『재일코리안 시선집[在日コリアン詩選集]』(土曜美術出版販賣, 2005)을 펴낸 사가와 아키[佐川亞紀] 시인은 이 시선집에서 허남기와 강순 등 몇 명의 일본어 시를 제외하고 재일조선인 조선어 시를 한편도 소개하지 않았다. 그녀는 핵문제나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진보적인 시인이지만, 문예동의 조선어 시를 다루지 않는다. 또한 이 한창은 재일조선인 문학을 “조선인이 일본어로 조선적인 것이나 조선인의 생활을 그린 것에 한한다”고 제한하기도 하여, 조선어로 쓰여진 문학은 아예 배제하고 있다. 재일한국인 54명의 작가, 600여 편의 작품을 18권에 수록한 『재일문학전집』(勉誠出版, 2006)에서도 조선어 시를 단 한편도 소개하지 않고 있다. 김응교, 앞의 논문, 332쪽.

실존을 규정하는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시는 남과 북, 민단과 총련으로 이원화된 조직의 이데올로기적 허구성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여전히 식민의 그늘에서 차별받고 억압당하는 재일조선인들의 사회역사적 상황과 일상적 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구체적 실천을 보여주고자 했다.

우리는 새 規制의 방책에 따라
해방부터 登錄 하나씩을
지니고 다녀야 하였다.
절대적으로 必需攜帶!
번지르르한 강요밑에
허울좋은 收容.

하나의 조국에 건느지 못해
구름다리를 내려, 결국은
두 개 국적의 기명으로 변하여
꼭꼭 따로따로 罪人처럼 지장을 찍고
수속을 치르던 굴욕.

(중략)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들끼리
서로의 기록을 두고 따져서
까실까실 입장을 세워왔다.
입뿌리와는 版局이 달라
승강이를 부리고
斷罪하며 정분을 가리어
독살을 피우다 피투성이며
탕 문닫고 원수다.

그러나 動亂때 그 지경같이
가린들 무슨 다름이 있을소냐.

다툼은 엉망진창을 이루어
 우리 지도자들에게 사상문젤지 모르나마
 일본당국의 교활을 보건데 분간없이
 군더더기 단속에 지나지 않는
 이 얼마나 개패가 아닌가.
 그런데 지는 해는 가도가도
 노상 눈초리가 치솟아 있다.

- 「개패」 중에서

한일조약의 결과 재일조선인은 일본 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얻었지만, 이는 재일조선인들의 권익을 개선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정치경제적 이권을 확보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의 산물이었으므로 사실상 “허울 좋은 수용”에 불과했다. 여기에 재일조선인의 인권과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적 방침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분단 조국의 현실에 대한 자기성찰은커녕 각각의 이데올로기를 앞세우기에 급급했던 재일조선인 사회는 “두 개 국적의 기명으로 변하여/꼭꼭 따로따로 罪人처럼 지장을 찍고/수속을 치르던 굴욕”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에는 외국인등록표 필수휴대를 강요받으며 마치 주인의 감시와 통제 아래 목줄이 묶여 있는 개와 같은 취급을 당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조선인들의 태도는 끝끝내 이데올로기적 폐쇄성으로부터 빠져나올 줄 몰랐다. 일본인들로부터 당한 수모와 굴욕에 맞서 공동의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서로의 기록을 두고 따져서/까실까실 입장을 세”우며 반목하고 질시하면서 “탕 문단고 원수”로 살았던 재일조선인들의 행태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는 커다란 과오가 아닐 수 없다. 그 결과 재일조선인들의 삶은 더욱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고, 재일조선인이라는 민족 정체성과 실존의 자리마저 위협당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강순은 그의 시가 “재일생활의 뒤숭숭하고 그만큼 곤혹으로 흔들리는 상황”과 “파문 속에 사는 한 생활자로서의 주저와 갈등과 울화”를 해소하는 하나

의 가능성이 되기를 진정으로 기대했다. 재일조선인의 실존은 남북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맹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동포들의 정직한 심정과 속임없는 내실의 형상”²³⁾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각인하고자 했던 것이다.

4. 맺음말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은 식민과 분단의 상처를 내면화한 재일조선인의 역사의식과 이데올로기에 근본적 바탕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작품이 개인의 정서를 동일성의 세계로 응축해내는 서정성의 심화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현실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표방하였다. 특히 1955년 총련 결성과 1959년 문예동 결성 이후에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문학의 운동성을 강화함으로써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이데올로기 지향성은 더욱 뚜렷하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그동안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은 이념의 장막에 가로 막혀 한국문학 연구에 있어서 사실상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일본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주도된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가 그 연구 대상과 범위를 일본어로 창작된 문학작품에 한정했을 뿐만 아니라, 장르에 있어서도 소설문학에 치중함으로써 우리말로 창작된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일본문학 연구자들은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을 일본문학 안의 소수자 문학으로 규정함으로써 한국문학의 범주로는 전혀 이해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김달수, 김석범, 이회성, 이양지, 유미리, 현월, 가네시로 가즈키 등 재일 디아스포라 작가들의 소설작품이 세

23) 「시집을 엮어놓고」, 『강바람』, 317-318쪽.

대를 넘어서 아주 활발하게 우리말로 번역된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으로, 시문학의 경우에는 김시중의 작품이 선집 형태로 일부 번역되어 출간되었을 뿐 허남기, 강순, 남시우 등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들 대부분의 작품이 아직까지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강순의 시를 주요 텍스트로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사회역사적 성격과 흐름을 살펴보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강순의 첫 시집 『강순시집』은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고려할 때 총련 결성 이전의 시와 이후의 시로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 총련 결성 이전의 경우에도 해방 직후부터 남북한이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1945-1948)하기까지 시의 양상과 그 이후부터 총련이 결성되기 전(1949-1954)까지 시의 모습은 일정한 차이가 있는데, 전자가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재일조선인들의 근원적 향수와 민족의 정한을 드러내는 민족적 표상의 형상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후자는 해방이 분단으로 고착화되어버린 현실에 대한 비판과 총련계 재일 지식인으로서 민족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모습을 형상화하는 데 강조점을 두었다. 그리고 총련 결성 이후(1955-1964)의 시세계는 총련의 지도자로서 북한에 대한 찬양과 남한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의 양상을 두드러지게 표방하였다.

두 번째 시집 『강바람』은 남북의 경직된 이데올로기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극단적 대립과 갈등으로 치달는 재일조선인 사회의 이원화에 대한 비판과,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는 반통일세력, 즉 미국, 일본과 같은 외세는 물론이거니와 민족보다 이념을 더 우선시하는 재일조선인 내부의 조직적 폐쇄성에 대한 강한 부정을 담아냈다. 이러한 그의 시의 경향은 그가 1964년 <조선신보사>를 그만두고 총련 조직을 떠난 가장 큰 이유가 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 디아스포라적 주체로서 그의 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민족의 통일에 있었음을 명확하게 제시했

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는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민족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모어로서의 일본어와 모국어로서의 우리말 사이에서 침예한 갈등을 겪어온 이중 언어의 현실을 특별히 주목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중 언어의 현실조차 이데올로기적 허구성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으로, 재일조선인들의 실존을 규정하고 민족 정체성을 구현하는 언어의 실천적 가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다. 그의 시가 이데올로기 중심의 『강순시집』의 경향에서 벗어나 재일 디아스포라의 생활상을 구체화하는 『강바람』의 세계로 변화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들어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탈민족, 탈국가 담론이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면서 ‘디아스포라’적 관점과 문제의식이 급격한 세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아주 유효한 담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식민과 분단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우리 민족에게 디아스포라는 역사적이고 이념적인 성격을 벗어나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관점은 국가주의의 호출을 거부한 채 독자성과 개별성을 유지해온 재일 디아스포라의 특수한 상황까지도 모두 획일화시켜 버리는 위험성을 안고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재일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민족과 국가의 범주 안에서 전유하거나 동일화하려는 태도는 현재 재일 디아스포라의 현실적 상황과 변화된 흐름을 사실상 무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아스포라를 국가 혹은 민족 간의 대립과 경계를 허무는 통합적 시각으로 이해함으로써, 문화적 교섭의 차원에서 그 본질적 의미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연구 관점과 태도의 정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 순, 『강순시집』, 강순시집발간회 편, 일본 : 조선신보사, 1964.
- 강 순, 『강바람』, 강순국문시집간행위원회, 일본 : 梨花書房, 1984.
- 강 순, 『날라리(なるなり)』, 일본 : 思潮社, 1970.
- 강 순, 『斷章』, 일본 : 書舎かいおん, 1986.
- 김응교,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 계보, 1945-1979 - 허남기, 강순, 김시중 시인」, 『인문연구』 55호, 영남대인문과학연구소, 2008. 12, 327-355쪽.
- 김학렬, 「재일 민족시인 강순 - 시집 『강바람』, 애통과 사랑과 격정의 세계」, 미발표원고.
- 김학렬, 「재일 조선인 조선어 시문학 개요」, 와세다대학조선문화연구회 · 해외동포문학편찬사업추진위원회 ·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공동주최, <재일조선인 조선어문학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움 자료집>, 2004년 12월 11일, 와세다대학교, 1-11쪽.
- 사이토 마모루, 「望郷の詩人 姜舜」(『植民地と祖國分斷わた生詩人たち』, 일본 : 토요미술사출판사, 2002, 76-96쪽.
- 윤건차, 박진우 외 옮김, 『교착된 사상의 현대사 - 1945년 이후의 한국 · 일본 · 재일조선인』, 창비, 2009.
- 윤의섭, 「재일동포 강순 시 연구 - 『강순 시집』을 중심으로」, 김학렬 외, 『재일동포 한국어문학의 전개양상과 특징 연구』, 국학자료원, 2007, 223-254쪽.
- 이경수, 「재일동포 한국어 시문학의 전개과정」, 김학렬 외, 『재일동포 한국어문학의 전개양상과 특징 연구』, 국학자료원, 2007, 99-138쪽.
- 이상갑, 「재일조선인 문학비평의 민족문화적 의미 - 조총련 문학비평의 특징과 이중 언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

68집, 한국언어문학회, 2009. 3, 411-434쪽.

하상일,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역사와 의미」, 『한국문학
논총』 제51집, 한국문학회, 2009. 4, 161-203쪽.

<Abstract>

A Study on the Poet Kang Sun, the Korean-Japanese Diaspora

Ha, Sang-il

This study looked into the poet Kang Sun, the Korean-Japanese Diaspora. After liberation, the Korean-Japanese Diaspora poetry started from Huh nam-gi, Kang Sun, and Nam si-woo, and it was transferred to Kim si-jong, Kim Yun, Jung hwa-hum, Kim hak-ryeol, and Jung hwa-su.

Kang Sun's poetry world was based on the yearning toward his mother country, our fundamental emotion. *Kang Sun's Sijip* (『강순시집』) showed strong politics including the pro-North Korea and anti-South Korea as a Chongryun member while dealing with ordeals and pains Koreans went through. On the other hand, *Kangbaram* (『강바람』) in which he collected creative poems after leaving Chongryun, announced the work reflecting the existence of Korean-Japanese Diaspora at the neutral position neither for Chongryun nor for Mindan. His poetry announced right after making Chongryun showed socialistic realism while expressing straightly admiration for North Korea, and sneers and criticism for North Korean politics. In addition, he announced the purposeful poetry of propaganda supporting actively Chongryun's patriotic projects. After leaving Chongryun, *Kangbaram* (『강바람』) showed critical self-reflection against the conspicuous reality of dualism of the Korean literary in Japan, and it aims to give

the direction to overcome the divided nation's reality through all-out criticism of anti-reunification forces.

After liberation, the Korean-Japanese Diaspora poetry was based on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ideology of the Korean-Japanese who internalized their hurt of colonization and division. Therefore, most of works tried to stand for realistic nature directly showing political social issues, instead of focusing on deepening the lyricism to condense personal emotion to the indentified world. As post-nationalism, post-society discourse is currently appearing as the important issue beyond the boundary of race and nation, the perspective of 'Diaspora' and problem awareness have attracted attention as the effective discourse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rapidly changing world. Kang Sun's poems have an important literary meaning as the text containing such the problem awareness.

Key Words : Korean-Japanese Diaspora, the Korean-Japanese

Diaspora poetry, Kang Sun, Huh nam-gi, Nam si-woo, Kim si-jong, Kim Yun, Jung hwa-hum, Kim hak-ryeol, Jung hwa-su, *Kang Sun's Sijip*(『강순시집』), *Kangbaram*(『강바람』), Chongryun, historical consciousness, ideology

■ 논문접수 : 2009년 11월 3일

■ 심사완료 : 2009년 12월 5일

■ 게재확정 : 2009년 12월 10일